

## 부로일러 종계의

# 선발기준

<한국 유리브리드 제공>

부로일러 종계(P.S)숫탍의 엄격한 선발은, 수정율 부화율을 높이고, 부로일러의 증체율을 높인다.

부로일러 양계장을 방문하였을 때 부로일러의 전반적인 성장율이 고르지 못한 경우를 가끔 본다. 성장율이 고르지 못한 것은 밀사, 모이통, 물통의 부족, 점등의 방법 등 사양관리의 잘못이 원인이 되어 생기기도 하지만 부로일러 종계 숫탍의 도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경우도 많다. 숫탍 종계를 잘 선발하는 것은 부로일러 종계 관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중의 하나이다.

숫탍 종계를 엄격히 선발하면 수정율과 부화율 향상에 대단한 효과를 나타내며, 콧머של 병아리의 성장율 증진에도 크게 이바지한다. 육성중의 부로일러 숫탍종계를 더욱 강력히 도태하면 할수록 부화율은 더욱 높아가고, 초생추의 성장율이 우수하다는 사실이 계속 증명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부로일러 종계 육추시에는 충분한 양의 숫병아리를 가지고 시작 할 필요가 있다.

성장율은 유전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성장율은 유전력이 가장 높은 형질이다. 따라서 육계가 대개 56일령~60일령 사이에 시장 출하 된다면, 종계 숫탍도 56일령~60일령 사이에

서 체중측정을 통한 선발을 하여야 한다.

즉 자손의 출하일령과 같은 일령에서 종계숫탍을 선발하여야만이 자손의 보다 빠른 성장을 보증할 수 있다.

대개 부로일러 종계숫탍을 선발하는데 흔히 범하는 잘못은 의견상 뚜렷한 도태대상이 되는 닭들만 도태해 버리고 선발을 끝내는 경우이다.

좀 체구가 적긴 하지만 닭이 건강하니까 도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 점이 자손을 충이지게되는 부로일러로 성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종계 숫 병아리의 첫번째 선발은 8~9주령에서 실시한다.

8주령에 성장율이 좋지 못한 숫탍에서 생산된 자손은 그 성장율도 나쁘기 때문이다.

부로일러 종계를 육추할 때, 특히 주의할 것은 균일한 발육을 시키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육추시 부터, 밀사, 모이통, 물통의 부족, 셋바람, 온도 부족, 질병 등으로 계군이 충이 저서 크면 막상 56일령경 선발을 하는데 선발 기준을 잡지 못해 매우 애를 먹게 될 것이다.

### 1. 숫탍 체중 상태와 성성속도를 심사한다.

체중을 달면서 두부의 발달, 벼슬의 발육정도 성성속의 정도, 다리의 발육정도, 숫탍다운 남성미, 체형, 자세들을 함께 관찰한다.

그림 1은 8주령 된 부로일러 종계 숫탍 2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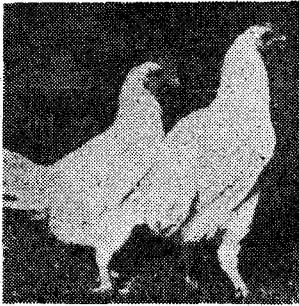
를 보여 주고 있다.

아래 숫탔은 도태해야 할 닭이다.

아래 숫탔은 성성숙이 너무 빨리 되어서, 체중도 정상계보다 350gm정도 작다. 비록 평균 체중에 가깝게 자랐다 할지라도 벼슬은 평균 이상으로 발육되어 성성숙이 너무 빨리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적으로 울기까지 한다)

늦게까지 숫탔다운 외모를 갖추지 못하는 닭도 수정율이 좋지 않지만, 이 닭처럼 너무 빨리 숫탔 외모를 갖춘 닭 또한 수정율은 시원치 않다. 성계가 된 후에도 체중은 다른 정상계만큼 크지 못한다.

그림 1의 오른쪽 닭은 벼슬도 적당히 발육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부 발육이 잘 되었고, 좋은 수정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몸의 균형도 좋다. 이러한 닭은 육질(고기질)도 뛰어나다.



<그림 1>

그림 2에서 오른쪽 닭이 도태 대상의 닭이다. 오른쪽 닭은 정상 체중은 거의 같으나, 최고의 수정율을 유지하기엔 너무 짧은 체구다. 그리고 숫탔다운 외모도 결여되어 있다.

성성숙이 너무 빠른 닭이나, 너무 늦은 닭은 성장속도도 느리고, 성계 체중도 평균에 떨어진다. <그림 2>



왼쪽 숫탔은 기준에 잘 맞는 닭이다.

## 2. 머리의 발육 상태를 관찰한다.

8주령 선발시에는 특히 숫탔의 눈에 특별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3의 닭은 수정율이 낮은 타입의 닭이다. 눈이 아래로 조금 처져 위치하고 있어 두부의 위에서 아래로 볼 때 중간의 위치에 눈이 놓여 있다. 이러한 닭은 활력도 적고, 수정율이 낮으며, 교미기간도 짧다.



<그림 3>

그림 4는 56일령 선발에서 선택되어야 할 두부형태의 가장 좋은 예이다. 이 닭의 눈은 그림 3의 닭의 눈보다, 머리 윗쪽으로 치우쳐 위치하고 있다. 머리와 눈이 이렇게 조합된 형태의 닭은 산육능력(産肉能力)과 높은 수정율이 가장 잘 조합된 특징을 가진 닭이라고 보면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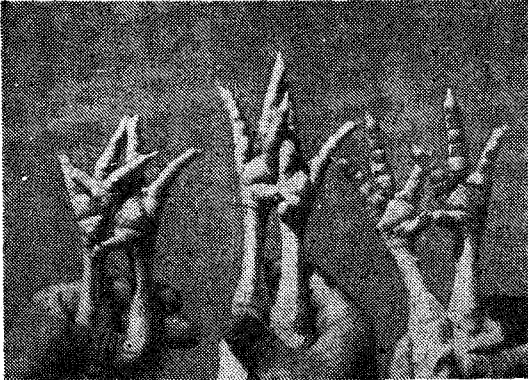
<그림 4>

### 3. 다리(정갱이)를 관찰한다.

지금까지 머리와 눈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때, 닭을 뒤집어서 정갱이를 보자.

그림 5는 3마리의 숫탔의 다리를 보여주고 있다.

오른쪽 다리는 성성숙이 결핍된 닭의 다리이다. 다리가 둥글고, 굵으며, 더욱 무겁다.



<그림 5>

중간에 있는 다리는 가장 잘 발달된 다리이다. 다리가 길으면서 굵지 않다. 이러한 다리를 가진 숫탔은 수정율과 자손의 성장율이 모두 좋다.

왼쪽에 있는 다리는 성성숙이 너무 빠른 닭의 다리이다. 이러한 닭은 싸우기를 좋아하고 체중과 육질이 결핍되어 있다. 정갱이의 상태와 두부의 발육상태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리를 볼 때 안장다리가 없나를 조사한다. (사진 6) 가슴이 좁고 발육이 빈약한 닭일 수록



<그림 6>

안장다리가 잘 생긴다. 이러한 현상은 일령이 지나면서, 체중이 더욱 무거워짐에 따라 더욱 심해진다. 이러한 닭은 반드시 도태해야 한다.

눈을 관찰할 때 혹시 백혈병으로 인하여 눈

의 동공이 흐려졌거나, 회색으로 변하여 있지 않은가를 검토한다. 이러한 닭은 성장이 부진하고 건강치 못하며 자손의 능력을 해치게 된다.

## 20~22주령에 제 2차 선발을 한다.

육성사에서 성계사로 옮길 때 혹은 20~22주령에 제 2차 선발을 한다. 가장 중요한 선택은 56일령에 이미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숫탔은 종계로 사용되기에 적합할 것이다.

20주령시에는 물리적인 상처를 받아 물T가 된 것이나, 56일령시에 미쳐 도태되지 못한 것을 골라낸다.

### 1. 앞가슴이 너무 살치고 행동이 둔한 것을 골라 낸다.

성장이 잘 된 것일지라도 앞가슴이 살이 많이 찌서 무겁고 행동이 둔한 것은 교미기간이 짧기 때문에 제 2차 선택에도 도태한다.

제 2차 선발에서 선택된 닭들은 체중이 정상 체중에 도달해 있고, 자세가 바르며, 숫탔다운 두부와 벼슬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 2. 두부(頭部)를 다시 검토한다.

56일주령시의 두부 심사 기준과 같다. 20주령이 되어도 암탔 벼슬인지 숫탔 벼슬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벼슬 발육이 미숙한 것은 수정율이 낮다. 또는 벼슬이 조그맣게 조그맣게 붙은 채로, 전연 자라지 않는 숫탔도 도태 대상이 된다. 이러한 닭은 의견상으로 숫탔의 남성미가 전연 없고, 활력도 부족하다. 교미 수명이 짧고 그림 3에 있는 닭과 같은 타입이다.

20주령 선발시 선택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숫탔은 활력있고, 벼슬, 육수, 깃부리가 충실하게 자랐고 윤기가 나며, 붉은색을 띄우는 닭이어야 한다. 눈은 두부의 2/3 높이에 위치하며, 두부는 투박스럽지 않고 두부골격이 미끈해야 한다.

초생추 구입시 충분한 숫병아리를 구입하여 이상 심사기준에서 철저한 도태를 하면 수정율, 부화율을 보다 향상시키고, 그에서 생산된 초생추의 성장을 더욱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